익산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협약

시, 내년 3월 24일까지 완료 위해 익산군산축협·축산단체·건축사와 함께 전담 T/F팀 구성

익산시가 2018년 3월 24일까지 지역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완료를 위해 익산군산축협과 축산단체, 건축사와 함께 전담 T/F팀 구성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4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는 정헌율 익산시장, 서충근 익산군산축협조합장, 장영수 축산단체대표, 안영묵 건축사대표 등 축산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시에 따르면 무허가축사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2018년 3월 24일까지 유예기간동안 시설 규모에 맞게 단계적으로 가축분뇨법과 건축법 등 규정에 맞게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적법화를 해야 한다. 특례기간까지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을 시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시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높은 설계용역비 부담 등으로 인한 적법화의 어려움을 겪은 농가들을 위해 익산군산축협과 축산단체, 건축사회와 함께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전담 T/F팀은 적법화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건축 허가, 축산업 허가 등 관내 무허가축사에 대한 적법화 작업 효율성을 높여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익산시 축산과는 축산농가에 홍보와 지도 및 인허가 신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맡고, 익산군산축협은 조합원 민원에 대응하고 행정절차 추진을 독려한다. 익산지역건축사회는 축산농가에 적정비용수준의 용역을 제공하고, 축산단체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적극 협조한다.

정헌율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내년 해당 기간까지 적법화가 완료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지역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홍부리황새 새식구 탄생

금강철새조망대에서 자연부화로 태어나

군산금강철새조망대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말 귀중한 새 생명이 태어나 새로운 식구의 탄생을 알렸다.

금강철새조망대에서 사육 중인 수컷 홍부리황새와 지난 2015년 서울대공원에서 기증받은 암컷 사이에서 자연부화로 새끼가 태어나 약 15일이 경과한 가운데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AI)의 확산으로 휴관을 하고 있는 금강철새조망대에 새로운 식구가 탄생하여 현 상황이 종료되면 관람객들의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천연기념물 199호로 마리당 1억원에 달하는 홍부리황새는 유럽황새로 불리며 국제관심대상으로 분류되어 많은 동물원에서 사육하고 있으나 자연부화로 새끼가 태어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군산=장현기자

군산 수송동,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CCTV 설치

군산시 수송동에서는 최근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청소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사람을 감지하면 말하고 보여주고 녹화하는 블랙박스형 CCTV를 4개소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설치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상가밀집지역, 원룸지역의 도 넘은 불법쓰레기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서다.

최근 도입한 블랙박스형 CCTV는 태양광 자가발전과 인체열감지센서가 내장돼 있어 사람이 접근할 경우 '불법투기금지 및 종량제봉투 사용'에 관한 음성방송이 흘러나오고 안내 멘트를 LED전광판을 통해 보여준다.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용 CCTV의 주요 단속대상은 규격봉투 미사용과 혼합배출 행위 등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보다 주민 스스로 무단투기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여 불법투기 쓰레기처리 예산절약과 함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더불어 야간에는 조명이 작동돼 야간촬영은 물론 가로등의 역할도 겸하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한 귀갓길을 지키고 범죄예방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전종신 수송동장은 "불법투기행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반복적인 단속에만 그칠게 아니라 불법투기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며, "앞으로 설치장소를 변경, 확대하여 고질적인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장 현 기자

군산시 수송동은 청소취약지역 4개소에 블랙박스형 CCTV를 설치했다.

군산 월명동, 현장 월례회의 눈길

군산시 월명동주민센터는 각종 자생단체 월례회의를 센터 회의실이 아닌 관내 주요 관광코스를 찾아 환경정비, 배려캠페인, 시정홍보 등을 펼치며 현장회의로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이번 달 월례회의를 근대역사박물관이 위치한 내항일원에서 환경정비활동과 병행하며 야외에서 도시락 토론회로 개최되었다.

이날 현장회의는 주민자치위원 및 직원 30명과 월명동 지역구 시의원인 박정희 군산시의장과 배형원 행정복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백년광장, 근대역사박물관, 진포해양테마공원 등 내항 일대의 무단 방치된 불법폐기물 정비를 실시했으며, 현장에서 도시락토론회를 열어 시정소식 공유 및 동네 발전을 위한 토론 시간을 가졌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 초등학생 스쿨팜 지원사업 인기

익산시농업기술센터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의 가치와 우리 먹거리의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스쿨팜(학교텃밭) 지원 사업이 학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스쿨팜지원사업은 전라북도와 익산시, 교육청, 초등학교,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4월부터 학교 내 노지텃밭을 조성하고 토마토, 고추, 가지 등 채소 재배와 텃밭상자를 이용한 벼농사 체험 등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학생들이 농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초등학생들은 채소재배와 벼농사 체험 뿐 아니라 재배한 농산물을 활용한 급식체험, 음식체험 등도 함께 해 먹거리의 소중함을 배우게 된다.

스쿨팜에 참여하는 12개 학교에는 도·시비, 농협자부담을 포함해 700만원씩, 총 8,400만원이 투입된다.

농업기술센터는 14일부터 16일까지 전문 지도사가 12개 학교를 순회하면서 작물재배기술을 지도한다. 농업을 경험하지 못하는 도시지역 초등학생들이 우리 농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가르친다. /익산=장양원 기자

찾아가는 익산 전국체전 홍보

익산시 전국체전담당관실은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붐을 조성하고 추진상황을 알리기 위해 각종 교육장과 행사장을 찾아다니는 홍보 활동에 나섰다.

지난 3일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시작으로 익산혁신교육특구 아카데미, 지역민방위대장 교육 등 다양한 교육장을 직접 순회하며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의 개최종목, 운영방향, 추진상황, 시민의 역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자발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적극 요청했다.

김성도 전국체전담당관은 "시민들에게 보다 자세히 전국체전 추진상황과 시민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여 관심을 유도하고 시민 모두 전국체전 홍보맨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종 교육장에 직접 찾아가 전국체전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해경, 내일 '청렴콘서트' 개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군산해양경찰이 선두에 나섰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16일 본관 대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공연팀을 초청해 청렴과 문화·예술을 접목시킨 '청렴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군산해경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청렴콘서트에는 군산시청을 비롯해 부안해경, 군산항공대 등 총 200여명이 넘는 공무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콘서트는 국민의 눈높이와 공무원의 부패 인식도를 풍자한 '고 이사의 하루'라는 연극 공연과 샌드아트(Sand art), 대중가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청렴연수원은 이번 공연을 통해 여러 직군의 공직자가 시행 9개월째를 맞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더욱 이해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계기 마련에 목표를 두고 있다.

해양경찰 최초로 이번 콘서트를 추진하는 군산해경도 올 초부터 부정부패 근절을 약속하며 내건 '청렴 플러스 프로젝트'가 제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군산해경 김주언 기획운영과장은 "공직자의 부정청탁이라는 주제가 문화·예술과 만나 이해하고 공감하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콘서트 상황극에 출연하는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장 고영창 서기관은 "교육의 진정성 전달을 위해 공직자가 직접 콘서트에 참여한 후 더 많은 공감을 이끌어 낸 것을 확인했다."며 "청렴하고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전국 어느 곳이든 찾아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군산=장 현 기자

군산 삼학동, 금광공원 정비

군산시 삼학동에 위치한 금광공원이 직원들과 주민들의 힘으로 좀 더 쾌적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정비되었다.

동에서는 지난 13일 주민센터 직원들과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통장협의회 등 자생단체 회원 및 주민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원 일대의 잡풀 제초작업과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마대 70포 분량을 수거했다.

특히 이번 작업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쾌적한 공원 조성에 참여해 더욱 의미가 깊은 환경정비 활동이 되었다.

한 주민은 "더운 날씨에 힘이 들었지만, 지역을 사랑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에 작업에 참여했다"며, "깨끗해진 공원을 보니 뿌듯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공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산=장 현 기자

김태홍 스포츠 아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태 홍

서바이벌
ATV / 버기카
래프팅 / 카약
스 키 / 보 드
펜 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485-2)

대표 약력
알피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국제대회 다수 참가 및 우승
동계U대회 국가대표 출전
국가대표 코치 역임
일본 삿뽀로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1/NSL2)취득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베르티 지격 취득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래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현)김태홍 스포츠 아카데미 대표